

# 고려(高麗) 충렬왕대(忠烈王代)의 사경연구(寫經研究)

李 殷 希

〈文化財研究所 研究員〉

- |                          |                  |
|--------------------------|------------------|
| I. 머리말                   | III. 寫經의 現況 및 樣式 |
| II. 忠烈王代의 佛教界 東向과 寫經製作狀況 | IV. 忠烈王代 寫經의 特徵  |
|                          | V. 맺는말           |

## I. 머리말

고려시대(高麗時代) 사경(寫經)은 불상복장(佛像服藏)이나 탑사리내용물(塔舍利內容物)로 봉안(奉安)되는 신앙적(信仰的) 의미를 지닌 공덕경(功德經)으로, 최고급 종이에 금은니로 변상도(變相圖)를 그리고, 경문을 쓴 호화롭고 화려한 장식경(裝飾經)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경은 통일신라(統一新羅) 경덕왕(景德王) 13~14년(754~755)에 제작된 「자지묵자대방광불화엄경(紫紙墨字大方廣佛華嚴經) 권제(卷第) 43」의 발견은 더욱 큰 의의(意義)를 지니게 된다. 즉 유통보급(流通普及)이라는 실용적인 면에서 공덕경(功德經) 또는 장식경(裝飾經)이라는 「서사(書寫)의 공덕(功德)」을 강조한 신앙적(信仰的)인 불사(佛事)로 옮겨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경의 사성(寫成)은 고려왕실에서도 많이 제작되는데 이는 국가의 환란을 구원하는 뜻도 있지만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려는 목적이 더 큰 뜻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거기에 선망(先亡)의 명복(冥福)을 빌고 자기 자신과 권속들에게 현세에서 복을 받게 해 달라는 기원의 뜻을 간절히 빌고 있다. 즉 불교경전의 광선유포(廣宣流布)라는 목적(目的)이 목판본(木版本)의 개판(開板)과 그 이후의 유행으로 불경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실용적인 면이 줄어든 반면에 「서사(書寫)의 공덕(功德)」이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충렬왕의 재위기간인 13세기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전환기였으며 이러한 혼란기에 사경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경은 신라유품에 벗어나 고려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뛰어난 작품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경의 구성에 있어서 금·은자원이란 국가전담 사경제작기구의 활동은 다른 왕들의 재위기간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단순한 미술작품으로서 보다는 이 전환기 즉 외세에 시달린 시기에 나타난 신앙적인 면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 충렬왕대의 불교계동향과 사경제작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충렬왕대 사경의 현상 및 양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 고려시대 사경중에서 특히 13세기의 특징을 밝혀보려고 한다.

## II. 충렬왕대(忠烈王代)의 불교계(佛教界) 동향(東向)과 사경 제작상황(寫經製作狀況)

12세기 후반부터 고려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커다란 격동기에 처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무신란과 뒤이어 집권한 최씨정권기에는 신분체제의 동요와 함께 민란이 일어났고, 국외적으로는 금(金)의

쇠망과 거란족(契丹族)의 부흥운동과 이동, 몽고족의 세력확장으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고려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3세기에 들어선 고려는 송(宋)·원(元)의 과도적 세력균형이 원(元)의 일원화된 세력으로 확립되면서 자주성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무신란이후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선종(禪宗)의 부흥과 신앙결사운동(信仰結社運動)의 전개였다. 왕실과 문신(文臣)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던 교종(敎宗) 중심의 불교계가 무신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후 침체해 있던 선종(禪宗) 세력이 최씨정권과 제휴하면서 새로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무신정권과 선종의 결합은 당시 교종의 반무신적 성격에 대한 반발이었고, 신라하대에 선종이 호족들에게 환영받았던 사실에서 비교해 볼 때 종래의 문신귀족에 의한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무신정권의 성향에 알맞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종은 경전을 통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에 의한 불교신앙을 그 중심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박한 무인(武人)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사세(寺勢)를 떨쳤던 사원(寺院)은 개경(開京) 중심의 교종사원(敎宗寺院)이었는데, 무신정권이후 문벌세력과 결탁된 것 때문에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이어 몽고가 침입에 이르러서는 수도 개경과 그 부근 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고, 강화도로 환도함으로써 고승들은 필연적으로 지방에서 활동기반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결사운동(結社運動)과 지방분산적(地方分散的) 불교사원(佛敎寺院)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 사실은 귀족중심적 경향에서 민중중심적 경향으로 전환된 사실이다. 12세기 전반기에 문벌귀족 출신의 교종승이 국사나 왕사를 독점했으나 12세기 후반에 선종 출신의 국사나 왕사가 책봉되었고 토착세력의 지원이 두드러진 현상인 지방불교로의 전환을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전환기에 충렬왕(忠烈王)(1236~1308, 1274~1308, 재위)은 무신란에 의한 최씨 정권이 무신 무너지고 밖으로는 강대한 몽고세력을 받으면서 그 세력의 영향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충렬왕은 원종(元宗)의 장자(長子)로 세자(世子) 심(諱)로 있을 때 원(元) 세조(世祖)의 딸 홀도노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원성공주(元成公主), 안평공주(安平公主),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로 추봉(追封))와 원년(元年) 15년(지원(至元)11, 1274) 5월에 결혼하였다. 이는 고려왕실과 대륙국가와 왕실과의 최초의 혼인이며 이 영향은 실로 컸다. 오랫동안 몽고의 침략을 받아오던 끝에 원(元)의 왕실과의 혼인은 역대 권신(權臣)에게 억눌려 오던 왕실의 지위가 원(元)이라는 강대한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안정되었지만, 원측에서는 고려를 지배하고 간섭하기 쉬운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그 후 양실의 혼인은 충선왕(忠宣王)·충숙왕(忠肅王)·충혜왕(忠惠王)·공민왕(恭愍王)의 1세기에 걸쳐 원의 왕실 또는 종실(宗室)에서 맞이하게 되므로써 고려왕실에 몽고의 관습·언어 즉 정치·경제·문화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약간의 이득은 고려왕실의 격하라는 희생 뒤에 얻어진 결과로서 왕명(王名)에 “충(忠)”자(字)를 덧붙여 원(元)에 대한 충성심(忠誠心)의 뜻을 나타내었고, 고려국왕은 독립된 왕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원(元) 제실(帝室)의 부마로서 고려는 부마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12세기말 13세기초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충렬왕대는 사상적으로 불교가 유학 또는 도교 등 다른 사상과 밀착되고 혼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밀교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의궤중심(儀軌中心)의 비밀의식(秘密儀式)이 성행했고 이를 통해서 진호국가(鎭護國家), 국태민안

1) 許興植,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韓國佛敎史研究』, 一潮閣, 1987. pp. 436~462.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pp. 331~352.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7. pp. 226-252.

2)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志社, 1976. pp. 187-193.

金瑋基,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pp. 517-526.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世進文化社, 1981.

高柄翊, 「元과의 關係의 變遷」, (한국사 7, 武臣政權과 對蒙抗爭).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 390-442.

『高麗史』 列傳 卷第2

(國泰民安)을 기원하였다. 비밀경전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보다는 수 많은 타라니(陀羅尼)가 제작되어 이러한 비밀의식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sup>3)</sup>

사경의 사상은 소원을 성취할 목적에서 행하여진 불사(佛事)였다. 첫째로 불교(佛敎)의 정법(正法)을 영구히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승려가 일상 독송(讀誦)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 제작하였다. 이를 수지경(受持經)이라 하는데 논(論)과 율(律) 계통의 것이 많다. 셋째, 「서사(書寫)의 공덕(功德)」을 지닌 죄멸복생(罪滅福生), 국조영롱(國祚永隆), 만민안락(萬民安樂), 난고득락(難苦得樂) 등의 현실에 대한 복리증진(福利增進)을 위해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현세(現世) 또는 선망(先亡)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부모(父母)·형제(兄弟)·처자(妻子) 등에 의해 공양경(供養經)이 제작되기도 하였다.<sup>4)</sup>

다시 말해서 대장경의 주조(鑄造)가 거란과 몽고등 외적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 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사경은 국가발전을 빌기 위한 뜻도 있지만 개인의 명복을 빌거나 자기 자신이 현세에 명복을 빌거나 자기 자신이 현세에 복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깃들여 있었다.

특히 충렬왕은 원과의 마찰속에서 즉 자신이 직접 금·은자원을 통해서 발원하게 된다. 현재 출령왕대에 제작한 기년명(紀年銘) 사경(寫經)은 모두 10점으로 다음과 같다.

번호	名 称	年代	發願者	變相圖	著者	出土	所藏處
1	紺紙銀字 不空羅索神變眞言經 卷第13	元年 (1275)	銀字院	有	三重大事 安諱		朴興慶
2	紺紙銀字 文殊舍利問菩提經	2年 (1276)	銀字院	有			日本文化廳
3	紺紙銀字 佛設菩薩本行經 卷下	4年 (1278)	銀字院	?	禪師 廻桓(?)		湖巖美術館
4	紺紙銀字 菩薩善戒經 卷第8	6年 (1280)	銀字院	?	禪師 安諱	清源寺 佛像腹藏	東國大博物館
5	紺紙銀字 妙法蓮華經 第7卷	9年 (1283) 추정	廉承益	有	朗鑑	南溪院 七層石塔	國立中央博物館
6	紺紙銀字 顯識論	10年 (1284)	銀字院	?			延世大圖書館
7	紺紙金字 佛設雜藏 卷第1	10年 (1284)	銀字院	?	禪師 之護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8	紺紙金字 妙法聖念處經	11年 (1285)	銀字院	?	金必爲		中共 天津博物館
9	紺紙金銀字 大方廣佛華嚴經 21~25, 71~73 晉賢行願品	17年 (1291)		有	惠月(謹題)		中共 新都 寶光寺 日本 京都 博物館
10	紺紙銀字 妙法蓮華經 및 阿彌陀經梵行品大悲 心合部	20年 (1294)		有			日本 京都 寶續寺

### Ⅲ. 사경(寫經)의 현황(現況) 및 양식(樣式)

3) 釋智賢, 『密敎』 玄岩社, 1978. pp. 380-387.

4) 小田義久, 「中國古寫經の 一考察」, 『龍谷大佛敎文化史研究所』 紀要四, pp. 108-112

(1) 감지은자불공견색신변진언경(紺紙銀字不空羅索神變眞言經) 권제(卷第)13(圖1 - ① ② ③)

① 형상(形狀)

이 경전은 충렬왕(忠烈王) 원년(元年)(1275)에 국가 전담사경제작기구인 은자원에서 사성된 것이다. 권수에서 권말에 이르기까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은자원 작품으로는 현존 최고의 유품이다. 박흥경씨(朴興慶氏) 소장품으로 최근 1984년에 국보 제210호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폭이 30.3cm, 총길이는 1,020cm에 이르는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이다. 겉표지에는 금은니보상당초문(金銀泥寶相唐草紋)을, 표지안에는 금니(金泥)로 변상도(變相圖)를 그린 전형적인 고려사경장식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문은 천지(天地)를 은니(銀泥)로 상하단변(上下單邊)을 가늘게 굵고 패선(掛線)도 역시 은니로 가늘게 구획하였고, 1줄에 14자씩 은자로 경문을 썼다. 경전말미에는 연대와 제작소를 밝히고, 뒷면에는 이 경을 서사(書寫)한 서자(書者)와 천자문(千字文)에 의한 대장경(大藏經)함수번호(函數番號)가 기록되어 있다.<sup>5)</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십이(至元)을해(乙亥)세고려국(高麗國)」

「왕발원사경은자대장(王發願寫經銀字大藏)」

「불공견색경제십삼권(不空羅索經第十三卷) 제십육장(第十六張) 모(慕)」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체서(安諦書)」

원나라 연호인 지원(至元) 12년 을해(乙亥) 고려국왕인 충렬왕이 발원하여 은자대장을 사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뒷면에 천자문에 의한 대장경 함수번호인 「모(慕)」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체서(安諦書)」라는 서자(書者)를 밝히고 있다. 즉 은자원이라는 국가전담사경제작기구에서 국왕이 발원하여 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은자원 사경중에서는 최고(最古)이다.

③ 겉표지그림

표지그림은 감지에 보상화꽃 5송이를 그리고 그 주위를 당초문으로 감싸고 있는 형식이며, 왼쪽에 은니로 선을 구획하고 중간에 약간 탈락되었지만 「불공(不空)……권제십삼(卷第十三)」과 아래에 「모(慕)」이라고 금자로 썼다.

보상화꽃은 활짝핀 큰 꽃송이 하나가 중심에 있고 그 위아래로 약간 작은 꽃송이를 2송이씩 활짝 핀 모양이며 그 주위에 잎이 넓은 당초문을 어우러지게 묘사하여 전체를 짙게 채웠다. 꽃잎과 잎을 입체감이 보이도록 가는 선으로 사선을 그려서 보다 치밀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다. 줄기가 많은 잎이 무성히 달려있고 거기에 보상화꽃 화분과 당초의 덩굴을 금니로 묘사하여 다른 잎들과 구분짓고 있다. 즉 활짝피고 풍만한 매우 사실적인 표현을 엿 볼 수 있다.

④ 표지안그림

표지안그림은 2줄의 선을 금니로 두르고 그 안에 경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신장상(神將像)을 금니로 그리고 있다. 이 상은 연화대좌위에 오른손에 금강저(金剛杵)를 쥐고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머리부분은 두광(頭光)대신에 화염(火焰)이 싸여있고 얼굴은 억세게 보이지만 해학적이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양어깨에 걸쳐 다시 양팔로 걸쳐진 천의(天衣)와 군의(裙衣)는 바람의 훑날리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의(裙衣)에 보이는 원문(圓紋), 사선형 문양(紋樣)과 팔과 다리에 나타난 근육등은 역동적이다. 온화한 얼굴표정, 유려한 의습, 연화대좌에 곳곳이 서있는 다리근육등은 치밀하고 활기차면서도 탄력성을 잃지 않는 사실적인 요소가 강하게 보이고 있다.

5) 黃壽永, 「安城淸源寺의 高麗寫經」, 『東洋學』 V.5,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975. pp. 443-454

\_\_\_\_\_, 「高麗國王發願의 金銀字大藏」, 『考古美術』 V.125, 韓國美術史學會, 1975. 3. pp. 2-7

\_\_\_\_\_, 「新羅·高麗寫經의 一考察」,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pp. 11-36.

### ⑤ 서풍(書風)

글씨체는 해서(楷書)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구양순(歐陽詢)의 근엄한 해서체(楷書體)를 모본으로 하였다. 「불(佛)」자나 「대(大)」자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안정된 필치를 보여 준다. 근엄한 필치이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쓴 단아(端雅)한 필치가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안제(安諦)라는 당대 최고의 사경승인 쓴 세련된 글씨체이다.

## (2) 감지은자문수사리문보제경(紺紙銀字文殊舍利問菩提經)(圖2 -①, ②)

### ① 형상(形狀)

이 경전은 충렬왕 2년(1276)에 역시 국가전담사경제작기구인 은자원에서 사성된 것으로 현재 일본(日本) 문화청(文化廳)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 권자본(卷字本)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형상(形狀)은 절본(折本)이며, 크기는 폭이 25,8cm 길이가 357,3cm.<sup>6)</sup>

표지는 감지에 금은니 보상당초문을 표지안그림에는 금니로 변상도를 그렸으며, 경문은 은니로 천지를 상하단변과 계선을 구획하고 1줄에 14자씩 은자로 경문을 썼다. 경전말미에 역시 발문이 쓰여져 있다. 또한 경전 첫머리에 「감(敢)」로 보아 천자문에 의한 대장경합수 표시로 보아 은자원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십삼年병자고려국왕발(至元十三年丙子高麗國王發)」

「원사성은자대장(願寫成銀字大藏)」

원지원(至元) 13년 병자(丙子) 즉 1276년 고려국왕 충렬왕이 발원하여 은자원에서 은자대장을 사성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보아 1275년 작품인 「감지은자불공견색신변진언경(紺紙銀字不空羅索神變眞言經)」 다음해에 만들어진 것이다.

### ③ 겉표지그림

겉표지그림은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1275년 작품과 같은 스타일이다. 활짝 핀 보상화꽃 사이를 잃이 무성한 당초문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화면을 꽉차게 그렸고 풍만하고 화려한 매우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다.

### ④ 표지안그림

이 변상도는 두줄로 윤곽선을 긋고 거기에 두 손을 금강저를 들고 있는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머리에는 불타는 듯한 화염으로 싸여있고 얼굴에는 위로 치켜올라간 눈썹과 부리부리한 누, 큰입 등은 무서운 표정을 보여준다. 어깨와 양팔에 걸쳐진 천의자락이 휘날리는 표현은 사선과 원문 문양이 그려진 균의자락은 1275년 신장상보다는 약간 도식적인 면이 엿보인다. 유려하면서 힘이 넘치는 1275년 작품보다는 무서운 얼굴 표정, 상투를 꼴은 머리 주위에 불타는 듯한 화염, 양어깨에 걸친 천의 자락이 흩날리는 모습은 경쾌한 운동감을 잘 표현하였다.

### ⑤ 서풍(書風)

1275년 작품보다는 자유롭고 활달한 글씨체를 보여준다. 경전의 첫머리와 경말미의 발문(跋文)은 행서(行書)에 가깝게 쓰여져 있는데, 통일신라작품인 「자지묵자대방광불화엄경(紫紙墨字大方廣佛華嚴經) 권제(卷第)43」과 유사한 유연한 감을 보여 준다. 힘차고 강렬한 느낌의 글씨체가 바람에 휘날리는 듯이 경쾌한 운동감을 지니고 있다. 즉 통일신라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글씨체로 1275년의 단아한 글씨체와 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3) 감지은자불설보살본행경(紺紙銀字佛說菩薩本行經) 권하(卷下)(圖3)

6) 權熹耕,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 『考古美術』 V.132, 韓國美術史學會, 1976. 12. pp. 14-32.

① 형상(形狀)

은자원에서 사성된 충렬왕 4年(1278) 작품으로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권자본(卷子本)으로 현재 상태는 천지만을 남기고 바싹 잘라져 있고 표지가 상실되어 표지안그림의 변상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현재의 크기는 폭 19.0cm, 길이는 17장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716.5cm에 달한다. 천자와 계선을 은니로 굵고 2cm 폭에 1줄에 14자씩 은자로 경문을 썼다. 경문말미에 발문이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대장경함수번호(大藏經函數番號)와 서자(書者)를 밝히고 있다.<sup>7)</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십오年무인고려국왕발원(至元十五年戊寅高麗國王發願)」  
「사성은자대장(寫成銀字大藏)」  
「보살본행경권하(菩薩本行經卷下) 제십칠장(第十七丈) 복(覆)」  
「선사(禪師) 회환(廻桓)(?)」

지원(至元) 15年 무인(戊寅) 즉 충렬왕 4年 (1278) 고려국왕이 발원하여 은자대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며, 선사(禪師) 회환(廻桓)(?)라는 서자를 밝히고 있어 역시 선종(禪宗) 계통의 승려가 은자원의 최고 책임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③ 서풍(書風)

1276年の 감지은자문수사리문보제경(紺紙銀字文殊舍利問菩提經)과 같은 필법 필치를 보여주는 경쾌한 운동감 있는 글씨체이다.

(4) 감지은자문수사리문 보제경(紺紙銀字菩薩善戒經 卷第8(圖4 -①, ②))

① 형상(形狀)

이 경전은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성은리(聖恩里) 천덕산(天德山)아래 청원사(淸源寺) 대웅전(大雄殿) 불상(佛像)의 개금불사(改金佛事)에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9권중의 하나로 국내에서 불상복장 유물로는 그 전래경위와 발견장소가 확실히 알려진 것으로 주목된다.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東國大學校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중 이경은 국왕발원(國王發願)에 의한 은자원에서 사성된 작품으로 보물 제740호에 지정되게 이르렀다. 경전 첫머리가 상실되어 표지 안그림의 변상도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알 수 없다. 형상은 권자본으로 폭이 30.1cm, 길이 1,300cm로 은니로 천지를 상하단변으로 굵게 굵고 계선을 가늘게 1~2.05cm 정도로 구획하고 약 1.5cm정도 크기로 은자로 경문을 썼다. 뒷면에 천자문에 의한 대장경함수번호와 서자를 밝히고 있다.<sup>8)</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십칠年경진세고려국(至元十七年庚辰歲高麗國)」  
「왕발원사성은자대장(王發願寫成銀字大藏)」  
「보살선계경제팔권(菩薩善戒經第八卷) 제이십이장(第二十二張) 유(維)」  
「선사(禪師) 안체(安諦) 서(書)」

지원(至元) 17年(年) 경진(庚辰)해에 즉 1280年 고려 국왕인 충렬왕이 발원하여 은자대장을 사성했다는 내용으로 뒷면에는 「종이 22장을 붙여서 만들었다는 것과 처자문에 의한 대장경함수번호도 보인다. 특히 안체(安諦)는 1275년에 만들어진 「감지은자불공견색신변진언경(紺紙銀字不空羅索神變眞言經) 권제(卷第)13」에서는 삼중대사(三重大師)였는데 그후에 선사(禪師)로 진급했음을 알 수 있고 은자원에서 승려계급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서풍(書風)

1275年 같은 안체(安諦)의 글씨로 단아하며, 정성드려 쓴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7) 任昌淳, 『書藝』, 韓國의 美 V.6, 中央日報 季刊美術, 1981.

8) 黃壽永, 앞글, pp. 443-454.

(5) 감지은자묘법연화경(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7卷(圖5 - ①, ②, ③))

① 형상(形狀)

이 사경은 충렬왕 9年(1283)경에 염승익(廉承益)이 발원한 것으로 경기도(京畿道) 개성군(開城郡) 청교면(靑郊面) 덕암리(德岩里) 남계원칠층석탑(南溪院七層石塔)에서 출토된 것인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법화경 완질본인 권자본으로 폭이 31.0cm이며 친지와 계선은 금니선으로 굵고 감지에 은자로 경문을 1줄에 14자씩 썼다. 겉표지는 감지에 금은니의 보상당초문을, 표지안그림은 역시 감지에 변상도를 그렸다. 법화경 7권 완질본이 석탑에서 탑사리 내용물로 봉안된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은자경으로 공덕경(功德經)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9)</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특위(特爲)」

「국왕궁왕무제재액병과잠소국토(國王宮王無諸災厄兵戈潛消國土)」

「삼계진미래겁작대불사역원(三界盡未來劫作大佛事亦願)」

「태평겸금지신불봉구횡속탈(太平兼及己身不逢九橫速脫)」

「일문권속무제병고무진법계(一門眷屬無諸病苦無盡法界)」

「생망공증보제자(生亡共證菩提者)」

「이월(二月) 일(日) 지(誌)」

「정의대부밀직사우승지흥위위상장군판대부지군박사사(正義大夫密直司右承旨興威衛上將軍判大府知軍薄司事) 염승익(廉承益)」

「원아임욕종시(願我臨欲終時) 진제일체제장애(盡除一切諸障礙)」

「면견피불아미타(面見彼佛阿彌陀) 즉득왕생안락찰(卽得往生安樂刹)」

「겸급처씨영령군부인노씨분신(兼及妻氏永寧郡夫人魯氏分身)」

「여자소남등액회소제수명연장(女子小男等厄會消除壽命延長)」

「함취낭원(咸就囊願)」

「십방제불보살(十方諸佛菩薩) 낭감(朗鑑)」

충렬왕의 충애를 받았던 정의대부(正義大夫)로 밀직사(密直司)의 석승지(石承旨)이고 흥위위(興威衛)의 상장군(上將軍) 대부사(大府寺)와 군박사(郡薄寺)의 판사(判事)였던 염승익(廉承益)이 발원한 것인데, 국왕인 충렬왕과 그의 왕비 제국대장공주(帝國大長公主)를 위해서 빌고, 국가의 안녕과 왕실권속들의 무병고를 빌고, 염승익과 그의 정 영녕군부인(永寧郡夫人) 노씨(魯氏)와 더불어 그들의 가족의 수명연장을 빌고 있다. 그러나 제작연대는 「이월(二月) 일(日) 지(誌)」라고만 적혀 있는데 그는 충렬왕 7년에 50여 명의 사람을 사역시켜 저택을 짓다가 공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자신의 저택을 금자대장소로 만들고<sup>10)</sup> 2年뒤에 남계원탑(南溪院塔)과 왕륜사석탑(王輪寺石塔)의 수리를 맡게되었고<sup>11)</sup> 이때에 은자묘법화경 7권을 만들고 남계원탑에 봉안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③ 겉표지그림

표지그림은 부분적으로 삭아 현재 상태가 좋지 않으나 1275年과 1276年의 작품과 같은 보상화꽃 5송이와 그 주위를 당초문으로 감싸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보상화꽃은 전대작품보다 작아지고 풍만하고 사실적인 면이 약간 줄어든 도식적인 모습이다. 왼쪽에 선을 구획하고 제목을 썼는데 그 주위에 연화대를 둘렀고 그 아래에는 「명(鳴)」이라고 쓰여져 있다.

9) 高裕燮, 「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 『韓國美術史及 美學論考』, 通文館, 1963. pp. 135-144.

\_\_\_\_\_, 「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의 補, 『韓國美術史及 美學論考』, 通文館, 1963. pp. 145-148.

10) 『高麗史』 列傳36 廉承益條 “承益, 精傾一國 臺諫敢問 賞私役其人五十構第 畏公主譴 請獻爲 大藏寫經所 許之”

『高麗史節要』 忠烈王 7年 3月條 “承旨廉承益請以其家一區爲金字大藏所 許旨初承益恃寵 私役其人構比家 懼公主見責 有是請

11) 『高麗史』 忠烈王 9年 秋7月條 “命廉承益孔愉修玄化寺, 又修南溪院王輪寺石塔”

#### ④ 표지안그림

표지안그림은 중간이 삭아 없어졌는데, 역시 신장상으로 왼손에 금강저를 들고 머리에는 화염의 표현은 1276년의 「문수사리문보체경(文殊舍利問菩提經)」과 같은 모습이다. 양어깨에 둘러친 천의, 군의의 원문, 연화대좌 등 전시대와 동일한 수법이나 1276년의 무서운 얼굴 표정보다는 좀더 해학적인 모습이 엿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도식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 ⑤ 서풍(書風)

이 글씨체는 1275년과 1280년 작품의 서자인 안체(安諦)의 단아한 면을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탄력성이 줄어들어 둔탁한 면이 보인다.

### (6) 감지은자현식론(紺紙銀字顯識論)(圖6)

#### ① 형상(形狀)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도서관(圖書館)에 소장된 이 경전은 충렬왕 10년(1284)에 은자원에서 만들어진 은자대장(銀字大藏)이다. 원래 권자본이었으나 경문첫머리의 7행과 마지막 말미에 발문만 남아 있는 것을 광서(光緒) 5년(1879) 을묘(乙卯) 봄 3월 12일에 동락(東洛)이라는 인물이 현식론서(顯識論序)와 함께 서첩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크기는 폭 27.5cm 길이 23.5cm로, 전지를 은니로 상하단변으로 굿고 계선은 천지보다 가늘게 구획하여서 1줄에 14자씩 경문을 은자로 썼다. 표지와 변사동의 유무(有無)는 알 수 없지만 국가전담사경제작기구인 은자원에서 사성된 것으로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다.<sup>12)</sup>

####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이십일년갑신고려국(至元二十一年甲申高麗國)」

「왕발원사성은자대장(王發願寫成銀字大藏)」

원나라 연호인 지원(至元) 21년 갑신(甲申)(1284)에 충렬왕이 발원하여 은자대장을 사성한 것으로 이 역시 첫머리에 보이는 천자문에 의한 대장경합수번호인 「가(加)」자를 볼 수 있어 은자원작품의 유형임을 잘 보여준다.

#### ③ 서풍(書風)

이 글씨체도 1280년의 「보살보계경(菩薩善戒經) 권제(卷第)8」 보다는 단아한 면이 줄어들고, 반면에 활기찬 대담한 필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7) 감지금자불성잡장경(紺紙金字佛設雜藏) 권제(卷第)1(圖7)

#### ① 형상(形狀)

이 경전은 1975년 일본(日本) 동경(東京)에서 「고서일품전시대즉매회(古書逸品展示大即賣會)」에 출품되어 알려진 금자대장경으로 은자원 작품인 「감지은자현식론(紺紙銀字顯識論)」과 같은 시기인 충렬왕 10년(1284)에 사성된 것이다<sup>13)</sup>. 천지나 계선을 구획하지 않고 은자원 작품의 1줄에 14자씩 쓴 경우와는 달리 1줄에 17자씩 금자로 경문을 썼다.

####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지원이일년갑신세고려국(至元二一年甲申歲高麗國)」

「국왕궁주특위(國王宮主特爲)」

「황제만년법계함령공증보제(皇帝萬年法界含靈共證菩提)」

「발원사성금자대장(發願寫成金字大藏)」

「선사(禪師) 지호서(之護書)」

12) 黃壽永, 앞글, pp. 22-7.

13) 權煥耕, 앞글, pp. 14-32.

黃壽永, 앞글, pp. 2-7.



원 지원(至元) 21년 갑신(甲申) 고려국에서 1284년에 국왕과 궁주 즉 충렬왕과 그의 몽인비(蒙人妃) 원세조(元世祖)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원(元)의 세조(世祖)에게 장수를 기원하며 금자대장을 발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원(對元)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서자는 선사(禪師) 지호(之護)로 밝혀지고 있어서 금자원의 승려계급도 또한 엿볼 수 있다.

③ 서풍(書風)

이 서체는 유연성이 줄어들고 둔탁한 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284년 같은 해에 제작된 「현식론(顯識論)」과 유사한 서체를 보여준다.

(8) 감지금자묘법성엄처경(紺紙金字妙法聖念處經)

① 형상(形狀)

이 사경은 일본(日本) 구주대학(九州大學)의 국죽순일조(菊竹淳一助)교수가 중공(中共) 천진박물관(天津博物館)에서 금자원의 사경을 접하게 되자 발문만 기록하여 와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유일한 금자원 작품으로 알려졌던 1284년 「불설잡장경(佛說雜藏經)」과 더불어 충렬왕대 금자원 작품으로 주목되나 안타깝게도 발문만이 소개되고 나머지 형상이나, 겉표지 그림 등 변상도의 유무(有無)를 알 수 없다. 경문은 1줄에 17자씩 금자로 썼다.<sup>14)</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 「지원이십이年을유세고려국(至元二十二年乙酉歲高麗國)」
- 「국왕국왕특위(國王國王特爲)」
- 「황제만年사해화평법계공생공증(皇帝萬年四海平和法界共生共證)」
- 「보제발원사성금자대장(菩提發願寫成金字大藏)」
- 「식목록사대영령금필위서(式目錄事大盈令金必爲書)」

지원 22년 을유(乙酉) 즉 1285년에 고려국에서 충렬왕과 그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가 그의 아버지인 원(元) 세조(世祖)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발원한 금자대장이다. 이 경을 쓴 서자(書者)는 식목도감(式目圖鑑)의 록사(錄事)이며 대영서(大盈署)의 영(令)인 금필위(金必爲)가 금자로 썼는데, 다른 경전의 서자와 달리 승려계급이 아닌 점이 주목된다.

(9) 감지금은자대방광불화엄경(紺紙金銀字大方廣佛華嚴經) 21~25, 71~73, 보현행원품(善賢行願品)(圖8 -①, ②, ③, ④, ⑤)

① 형상(形狀)

이 사경은 원 지원(至元) 28년(1291) 4월 8일인 석가탄신일에 장안(長安)에 종남산(終南山) 만수사(萬壽寺) 주지(住持) 광명선사(光明禪師) 혜월(惠月)이 발원한 것으로 원나라 사경이지만 충렬왕대에 고려사 경승을 징발해 간 「고려사(高麗史)」<sup>15)</sup>등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승려들의 작품이거나 고려사경을 모방한 원나라 사경으로 추정된다. 권제(卷第) 71~73, 보현행원품 등 4권은 수옥효장씨(守屋孝藏氏) 수집품(蒐集品)으로 경도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고 권제(卷第) 21~25 등 5권은 중공(中共) 신도(新都) 보광사(寶光寺)에 소장되어 있다.<sup>16)</sup>

절본형상으로 폭은 31cm 길이는 11.1cm로 겉표지는 다색(茶色)의 저지(楮地)에 운형문능(雲形文綾)을 그리고 표지안그림은 감지(紺紙)에 금니로 변상도를 그렸다. 경문은 천지를 굽은 은니선으로 상하단변을 굿고 계선은 생략하였으며, 반개(半開)를 6줄로 나누고 1줄에 17자씩 은자로 썼는데, 불(佛)·보살

14) 權烹耕, 『高麗寫經의 研究』 미진사, 1986. pp. 389.  
 15) 權烹耕, 앞글, pp. 389.  
 16) 『高麗史』 忠烈王 16年 3月, 4月, 8月條와 忠烈王 23, 28, 31條에도 사경승을 징집해간 기록을 통해서 원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16) 『中國佛教の 旅』 第三集, 美乃美, 1980. pp. 116.

(菩薩)·여래(如來)·법(法)·천(天) 등의 문자(文字)에 한해서 금자로 썼고, 발문에서도 불법(佛法)·대장(大藏)·승(僧)·법화경(法華經)·황(皇)·불(佛)·비노(毘盧)의 12자로 금자로 썼다<sup>17)</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장안종남산만수선사주지광명선사혜월룡서인(長安終南山萬壽禪寺住持光明禪師惠月隴西人)」, 「야구세락발피치일거하란산사침례도명대선백(也九歲落髮披緇一踞荷蘭山寺瞻禮道明大禪伯)」, 「위출세지사단석자참득발휘지인(爲出世之師旦夕參得發輝之印) 선피세북후력(先避塞北後歷)」, 「강남복건로증병어권가홍부적예위록수촌염(江南福建路曾秉於權嘉興府赤預爲錄首村念)」, 「치지람태유사(緇之濫汰惟思)」, 「불법지난봉사제기재포진혜시인조십이지대장(佛法之難逢捨梯已財鋪陳惠施印造十二之大藏)」, 「체도이팔지승운산오십삼부지화엄사일백인조(剃度二八之僧倫散五十三部之華嚴捨一百人條)」, 「지법복서금은자팔십일권원각기신상수사법화(之法服書金銀字八十一卷圓覺起信相隨寫法華)」, 「경이십팔편범강금강각부집자승선결량록(經二十八篇梵綱金剛各部集茲勝善善結良錄)」, 「황은불은이원보무궁조의교의이발명정성사장(皇恩佛恩而願報無窮祖意教意而發明正性師長)」, 「부모동승반약지자주법계상생기부비노노지성해(父母東承般若之慈舟法界象生其浮毗盧盧之性海)」, 「지원이십팔년세차신묘사월팔일광명선사혜월근제(至元二十八年歲次辛卯四月八日光明禪師惠月謹題)」

중국장안(中國長安)의 종남산(終南山) 만수사(萬壽寺) 주지(住持)인 광명선사(光明禪師) 혜월(惠月)이 지원(至元) 28年 즉 1291年 4月 8日에 발원한 것으로 출가하여 도명대선사백(道明大禪伯)을 스승으로 삼았으며 세북(塞北)을 유함하고 강남(江南)의 땅을 편력하면서 복건로(福建路)에서 가흥부(嘉興府)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황은(皇恩)과 불은(佛恩)에 보답하고자 사장(師長)과 부모(父母)를 반야(般若)의 자비로운 배를 타고 법계(法界)의 생(生)을 비노(毘盧)의 성해(性海)에 띄우게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경전과는 달리 혜월(惠月)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일 담겨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③ 겉표지 그림

겉표지 그림은 다색(茶色)에 운형문룡(雲形文綾)을 그렸으며 중간에는 감지에 제목을 썼다. 보상당초가 아닌 점이 특이 할 만 하다.

④ 표지 안그림

변상도는 화엄경의 각권의 내용을 경전 첫머리에 그리고 있다.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고려사경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금강저(金剛杵)를 그리고 그 안에 경전내용이 담겨져 있다. 화면가득히 금니로 화엄경의 세계를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의 현현(顯現)하였고 그 주위를 기타 권속들이 청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변상도는 의문에 보이는 원문, 사선문등으로 유려한 필치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양식고찰은 화엄경 변상도만 모아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고자 한다.

⑤ 서풍(書風)

이 서체는 금엄한 분위기를 보이는데 단하거나 경쾌한 면 보다는 다소 둔탁한 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10) 감지은자묘법연화경(紺紙銀字妙法蓮華經) 및 아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① 형상(形狀)

이 경은 충렬왕 20年 (1294)의 작품으로 제1권 뒷면에 제2권을 제3권 뒷면에 제4권을, 제5권 뒷면에 제6권을, 제7권 뒷면에 아미타경(阿彌陀經), 화엄경범행품(華嚴經梵行品), 대비심타라니경(大悲心陀羅尼經) 등을 합한 아미타범행품대비심합부(阿彌陀梵行品大悲心合部)가 사성된 결과 안 즉 양면 서사경전으로 일본(日本) 경도(京都) 보적사(寶積寺)에 전해온다. 겉표지 그림은 금은니 보상화문을 법화경 제1권과

17) 秀氏祐祥, 「高麗時代 寫經に 就て」, 『寶雲』 V.25. 寶雲刊行所, 1939. pp. 1-19.

아미타경 변상도는 금니로 그려져 있고, 아미타경 말미에 발문이 적혀 있다. 크기는 폭이 30.5cm, 반개(半開)의 길이가 11.0cm로 상하단 변과 계선을 은니로 긋고 거기에 1줄에 17자로 은자로 경문을 썼다.<sup>18)</sup>

② 발문내용(跋文內容)

- 「복위(伏爲)」
- 「황제만세(皇帝萬歲)」
- 「불일증명법륜상전선망부모이고(佛日增明法輪常轉先亡父母離苦)」
- 「득락겸급기신일문춘속각탈(得樂兼及己身一門春屬各脫)」
- 「재앙동증복수세세생상득(災殃同增福壽世世生生常得)」
- 「길상견(吉祥見)」
- 「불문법오무생인도제유정방증보제(佛聞法悟無生忍度諸有情方證菩提)」
- 「지원책인가중경사성은자(之願債人家中敬寫成銀字)」
- 「법화경일부금광명경사권아미타(法華經一部金光明經四卷阿彌陀)」
- 「경범행품각수대비심타라니등(經梵行品各手大悲心陀羅尼等)」
- 「경용자복이이근지(經用資福利耳謹誌)」
- 「지원삼십일년갑오십이월(至元三十一年甲午十二月) 일(日)」
- 「공덕주중정태부중부령치사안절(功德主中正太夫宗簿令致仕安節)」
- 「안주군부인이씨(安州郡夫人李氏)」
- 「동원(同願)」
- 「창녕군부인(昌寧郡夫人) 장씨(張氏)」

대공덕주(大功德主)인 안절(安節)은 중정대부(中正大夫)로 종부사(宗簿寺)의 령(令)의 벼슬을 지냈는데 그의 처(妻) 안동군부인(安東郡夫人) 이씨(李氏)와 창녕군부인(昌寧郡夫人) 장씨(張氏)와 더불어 발원한 것이다. 원나라 황제와 고려국왕의 만수무강을 먼저 빌고 다음에 사망(死亡)한 부모의 명복(冥福)과 발원자 가족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법화경 1부와 더불어 금광명권(金光明經) 4권(卷), 아미타경(阿彌陀經), 범행품(梵行品), 대비심타라니경(大悲心陀羅尼經)을 함께 은자로 사성했다고 한다. 현재 법화경(法華經) 4첩(帖)과 감지금자보모은중경(紺紙金字父母恩重經) 1첩(帖)과 함께 고려시대에 제작된 묵칠지란쌍공작초화문양심금경거(墨漆地鸞雙孔雀草花文樣沈金經宮) 즉 경상(經箱)에 보관되어 전해 오는데, 금광명경(金光明經)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③ 겉표지 그림

보상화꽃 4송이를 나란히 그리고 그 주위에 당초문을 두른 형식으로 고려사경의 겉표지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 겉표지 끝을 화문으로 장식하고 그 안에 형식적인 4송이가 같은 크기로 나란히 있고 그 위에 직사각형의 틀을 만들고 제목을 썼다. 이러한 겉표지그림은 현존하는 작품중에서 처음 나타나는 양식으로 주목된다.

④ 표지 안그림

묘법연화경 권제(卷第) 1의 변상도는 직사각형의 테두리에 금강저문양을 장식하고 그 안의 1/4에는 다문천왕상(多聞天王像)을 나머지는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장면을 그렸다. 뒷면에 아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는 법화경의 1/2크기에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두 그림 다 화면의 빈공간을 구름문으로 꽉 채웠으며, 1294년의 화엄경보다는 도시적인 면이 엿보인다.

⑤ 서풍(書風)

이 글씨체는 충렬왕대의 제작된 마지막 사경으로 유려한 면이 점차 사라지고 둔탁한 면이 엿보인다. 13세기에서 14세기초로 이어지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18) 『高麗佛畫特別殿』, 大和文華館, 1978.

#### IV. 충렬왕대(忠烈王代) 사경(寫經)의 특징(特徵)

충렬왕대의 사경은 국가전담사경제작기구인 금자원 은자원에서 사성된 것이 주조를 이루고 불상복장이나 탐사리내용물인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공덕경으로, 장식경으로도 그 면모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13세기 즉 충렬왕대의 사경은 고려사경 중에서도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사경의 장식경을 잘 나타낸 일반적인 형식으로 겹표지 그림에도 금은니보상당초문을 표지안그림에는 경의 내용을 쉽게 도해한 변상도 즉 신장상이 금니로 그려져 있다.

겹표지에 그려진 보상당초문은 1275, 1276, 1283年 작품에서 보면 보상화꽃 5송이를 그리고 그 주위를 잎이 풍성하게 달린 당초문이 감싸고 있다. 또한 덩굴과 보상화꽃 화분을 금니로 묘사하여 매우 사실적이다. 그러나 1294년에 이르러 보상화꽃 4개를 일직선으로 그리고 거기에 직사각형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목을 쓴 고려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정착됨을 알 수 있다.

변상도의 경우는 경전을 수호해 주는 신장상이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 1294年 작품인 법화경의 경우에는 변상도 첫머리에 다문천왕(多聞天王)이 보인다.

둘째, 사경의 형상은 권자본과 절본 등 두가지인데, 금자원과 은자원작품의 경우는 거의 권자본이다. 경문은 이 30cm내외이며 천지와 계선을 구획하고 금자원의 경우는 1줄에 17자씩, 은자원의 경우는 1줄에 14자씩 은자로 썼다. 또한 은자원의 경우는 겹표지와 권수아래에 천자문(千字文)에 의한 대장경(大藏經) 함수번호(函數番號)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용지는 동(銅)을 부식시킨 녹물에 닥나무 종이를 담가서 만든 농감지(濃紺紙)만 보이고 있다.

넷째, 서사된 경전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등 이대경전(二大經典)보다는 밀교(密敎)계통의 경전이 많다. 특히 금·은 자원에서 사성된 경전은 거의 밀교계통이다.

다섯째, 사경의 서사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경전을 서사하는 경우, 전문사경승이 서사하는 경우, 사원(寺院)에서 서사하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대부분 선종계통의 전문 사경승려가 서사한 것이다.

여섯째, 사경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국왕발원의 국가전담사경기구인 금·은자원에서 제작되는 경우와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일족과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국가 전담기구인 은자원에서 사성된 작품을 살펴보면

- 「감지은자불공견색신변진언경(紺紙銀字不空羅索神變眞言經) 권제(卷第)13」 (1275年)
- 「감지은자문수사리문보제경(紺紙銀字文殊舍利問菩提經)」 (1276年)
- 「감지은자불설보살본행경(紺紙銀字佛設菩薩本行經)」 (1278年)
- 「감지은자보살선계경(紺紙銀字菩薩善戒經) 권제(卷第)8」 (1280年)
- 「감지은자현식론(紺紙銀字顯識論)」 (1284年)

등 다섯작품이 충렬왕대(忠烈王代)의 작품(作品)으로 전해 온다. 이들 은자경의 서자는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체(安諦), 선사(禪師) 회환(廻桓)(?), 선사(禪師) 안체(安諦) 등으로 보아 선종계통의 승려임을 알 수 있는데, 13세기때에 왕사(王師)나 국사(國師)등도 선종에서 책봉되었음을 볼 때 당해 최고 지위의 사경전문승려로 하여금 경전을 서사케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금자원에서 사성된 작품은

- 「감지금자불설잡장경(紺紙金字佛設雜藏經)」 (1284年)
- 「감지금자묘법성엄처경(紺紙金字妙法聖念處經)」 (1285年)

두 점이 전해온다. 이 경전들을 쓴 서자는 선사(禪師) 지호(之護)와 김필위(金必爲)로 선종계통의 전문 사경승려와 승려계급이 아닌 왕의 신망을 받던 자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실력자로 하여금 금자로

쓴 것은 은자원과는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등급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귀족들 사이에서도 사경제작을 하였는데, 그중 염승익이라는 주목된다. 이는 자기거처에 사경소를 세우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경제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충렬왕대는 귀족들사이에서 보다는 국가기구인 금자원과 은자원에서 국왕발원에 의한 사경제작이 더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원(元)에서 많은 사경승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실제의 예로는 「감지금은자대방광전엄경(紺紙金銀字大方廣傳嚴經) 권제(卷第)21~25, 71~73,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이다.

여덟째, 13세기의 글씨체는 당대 최고의 사경전문승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단아하고 활기찬 글씨체이나, 13세기말로 들어서면서 둔탁하고 도식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V. 맺는말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 및 귀족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호국불교(護國佛教), 현세이익불교(現世利益佛教)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내세관(來世觀)에 입각한 종교로 국가나 개인의 번영과 행복을 좌우하는 신앙적 대상으로 받아들여 왔었다. 특히 13세기인 충렬왕의 재위기간은 국내적이나 국외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할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가 결국은 국가전담사경제작기구의 금자원, 은자원에서 국가의 발전을 빌고, 자기 자신의 현세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의 사경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이 충렬왕대의 사경은 고려초기 작품이 현재 몇점 남아 있지 않는 점으로 볼 때, 13세기에는 고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또 정착되가는 과정을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시기 이후에는 대량 생산되고 양식적으로도 도식화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는 주목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구인 금·은자원의 작품도 이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으로 사경의 변상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점이 아쉬우나, 다음기회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圖1-① 「紺紙不空羅索變眞言經  
卷第13.」 겉표지 그림

圖 1-① 「감지은자불공견색신변진언경(紺紙銀字不空羅索神變眞言經)  
권제(卷第)13」 겉표지 그림



圖1-②

圖 1-②



圖1-③

圖 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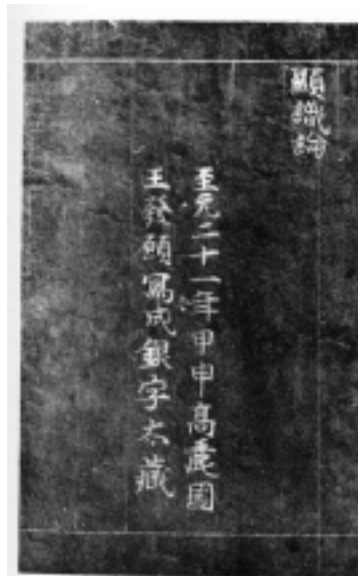


圖6 紺紙銀字顯識論

圖 6 감지은자현식론(紺紙銀字顯識論)



圖7 紺紙金字佛說雜藏經 卷第1

圖 7 감지금자불설잡장(紺紙金字佛設雜藏) 권제(卷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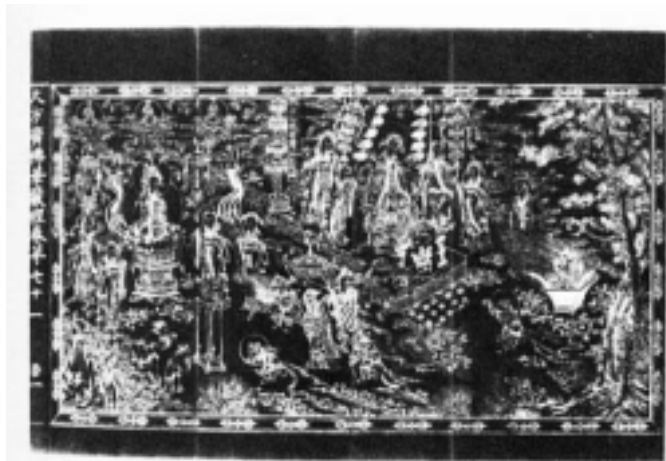


圖8-①

圖 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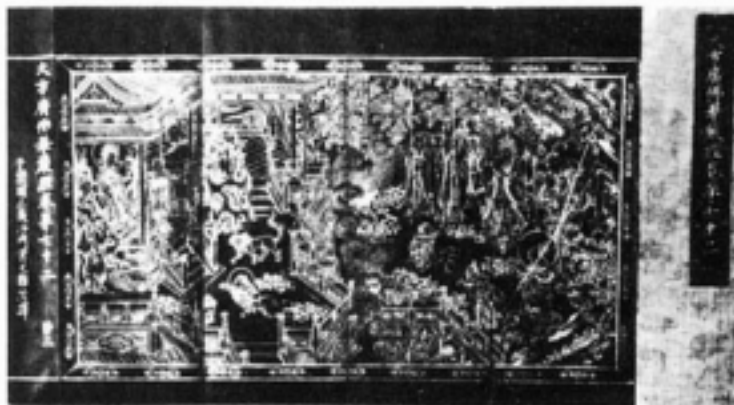


圖8-②

圖 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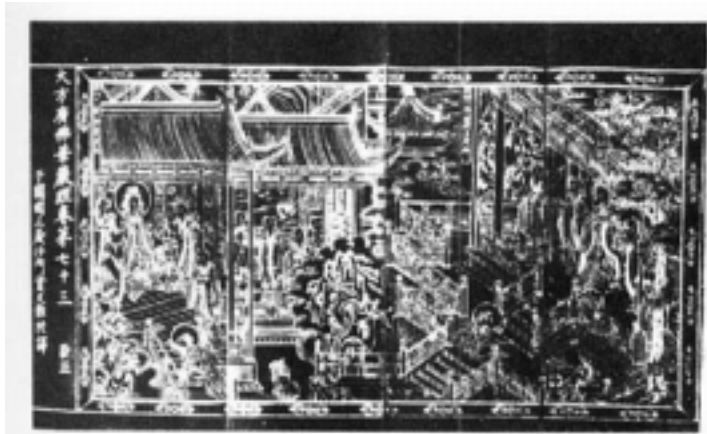


圖8-③

圖 8-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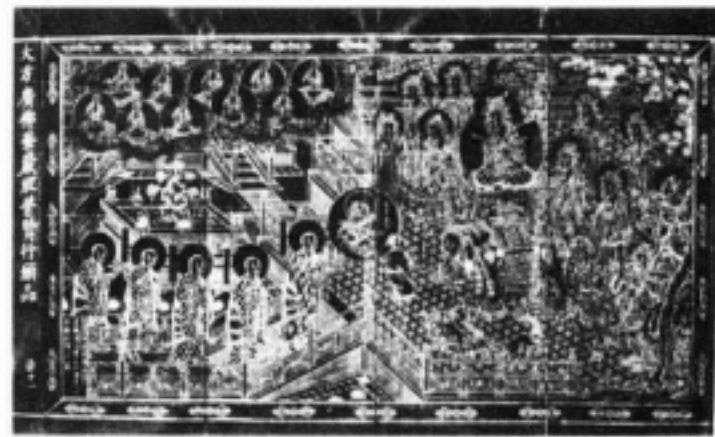


圖8-④

圖 8-④



圖8-⑤

圖 8-⑤





圖9-① 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7卷 및 阿彌陀經  
梵行品大悲心合部.

圖 9-①

감지은자묘법연화경(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7권(卷)  
아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圖9-②

圖 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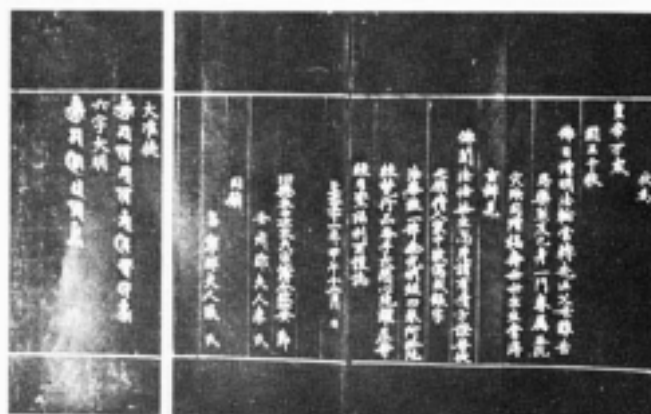


圖9-③

圖 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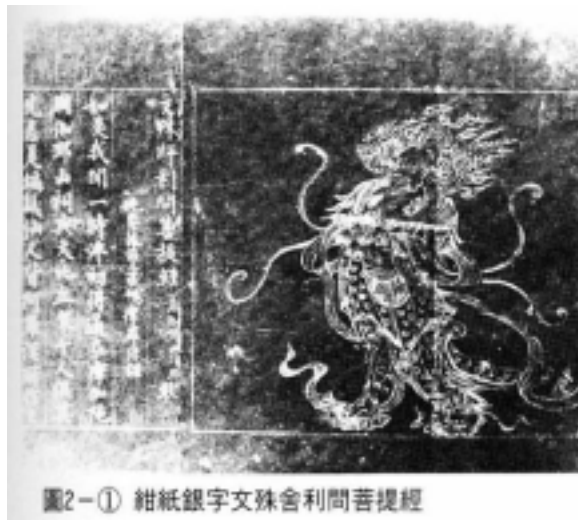


圖 2-① 감지은자문수사리문보제경(紺紙銀字文殊舍利問菩提經)



圖 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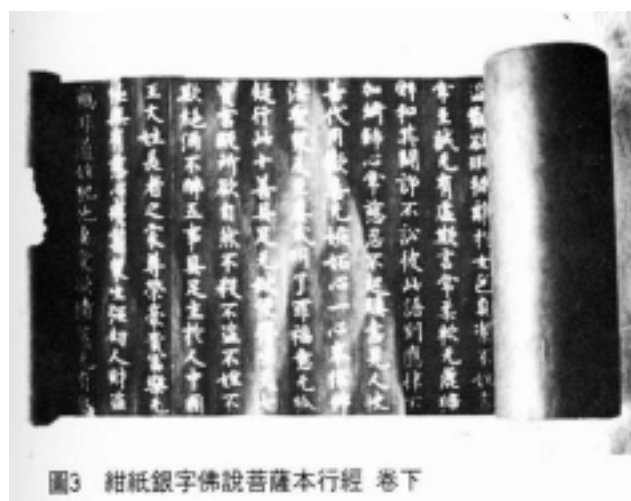


圖 3 감지은자불설보살본행경(紺紙銀字佛說菩薩本行經) 권하(卷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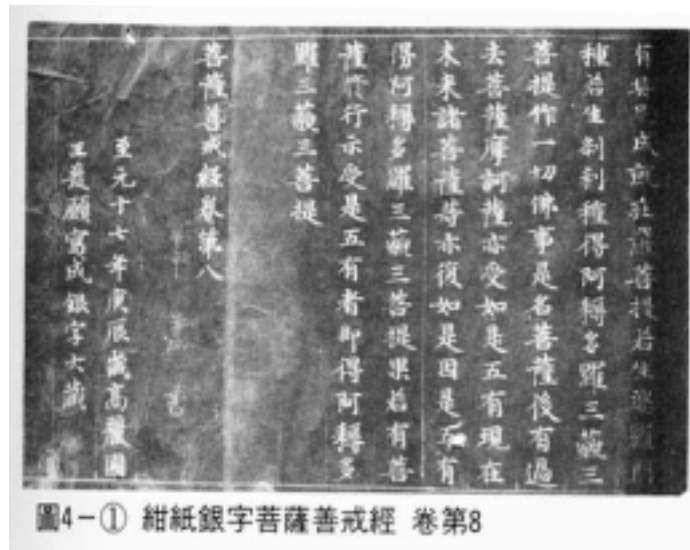


圖 4-① 감지은자보살선계경(紺紙銀字菩薩善戒經) 권제(卷第)8



圖4-②

圖 4-②



圖5-① 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7卷

圖 5-① 감지은자묘법연화경(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7권(卷)



圖5-②

圖 5-②



圖5-③

圖 5-③